

News

4대 금융지주 주총 마무리... "이변은 없었다"

이데일리

하나금융지주, 함영주 부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 의결... 국내외 의결권 자문기관 반대 권고에도 실제 주총에서는 안건 통과... 김정태 회장에게 특별공로금 50억원 건도 통과
KB금융, 다섯번째 노조추천이사 도입 시도 또 좌절... 우리금융, 이원덕 행장 비상임이사 선임과 중간배당 관련 정관 변경

BNK금융지주, 정기주총 통해 주당 560원 배당 결정

뉴시스

BNK금융지주, 21년 재무제표 승인 및 주당배당금 560원 결정... 작년 지배주주 당기순이익 7,910억원 시현
신임 여성 사외이사로 김수희 사외이사도 선임... 올해 임기 만료되는 사외이사 4명 중 정기영 사외이사만 퇴임, 3명은 재선임

'마통' 5000만원 시대 끝... 은행들 한도 다 풀었다

파이낸셜뉴스

5대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80%까지 확대, 5,000만원으로 막아놓은 마이너스통장 한도 복구... 우리은행, 다음 달 4일부터 마이너스통장 한도 8,000만~3억원까지 확대
신한은행, 마이너스통장과 일반 신용대출 한도 복원 검토 중으로 이르면 다음 주께 시행 예정... KB와 하나는 이미 대부분 작년 상반기 수준으로 복구

은행 주담대 금리 9년 만에 4% 넘어... KB 가장 낮고, 우리 가장 높아

조선비즈

국내 주요 5대 시중은행, 주담대 평균 금리 9년 만에 연 4% 넘어서... 은행들의 가산금리 대폭 인상 및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영향 때문
평균 금리 연 3.96~4.37%로 집계... KB 3.96%, 신한 4.10%, 하나 4.0%, 우리 4.37%, NH 4.06%로 집계... 평균 가산금리는 1.84%

'마일리지 특약' 없어도 주행거리 적으면 보험료 자동환불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 자동차 보험 특약 개정... 다음달부터 자동차 보험 마일리지 특약에 가입하지 않아도 운전 적게 하면 자동으로 보험료 일부 환급 가능
전체 자동차 보험 가입자 중 32%인 548만명이 마일리지 특약에 가입하지 않고 있어... 특약 개정되는 오는 4월부터 모든 자동차 보험 가입자가 특약에 자동 가입

생보사 취급 대출액 154조원 넘어... 1년 새 5조원 증가

조선비즈

국내 생보사 취급 대출, 154조원 넘는 등 1년 새 5조원 넘게 늘어나... 전년 대비 5조 1,803억원 증가해 3.5% 정도 증가한 셈
삼성생명 6.3% 증가, 한화생명 6.3% 증가... 반면 교보생명, -7.3% 감소... 생보사가 전체 보험사 대출 중 3분의 2이상 차지... 은행권 대출 규제 강화 영향 때문으로 분석

사업 다각화로 실적 방어... 몸집 키우는 증권사

서울파이낸스

NH투자증권, 농협금융지주 대상 제3자 배정 유상증자 통해 4,000억원 조달... 자기자본 7조 2,233억원으로 증가해 업계 2위 탈환
하이투자증권, 2,000억원 규모 신종자본증권 발행으로 2년 만에 자본 확충 나서... DGB금융지주에서 전액 인수 예정... KTB, 480억원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 증권사 10곳 육박... 증권가 '성장하는 신규 시장 잡아라'

아주경제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 기능 제공 증권사 급증... 이달 말 카카오페이증권, 4월 토스증권까지 서비스 개시할 경우 서비스 제공사는 총 9곳으로 증가
카카오페이증권, 3월 중으로 카카오페이증권 MTS에 관련 기능 탑재한다는 계획... 하나금융, 5월말 서비스 개시... 대신증권, 2분기 관련 서비스 출시... 3분기에는 KTB와 메리츠

Compliance Notice

본 조서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서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서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